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전체상을 조감한 40년 연구 성과

르네상스라는 말이 미술사 혹은 문화사의 용어로 편입된 것은 16세기의 미술사가 바사리에 의해서다. 그의 저서 《이탈리아 미술가열전美術家列傳》(1550년 초판)에 의하면 야만족의 침입과 중세의 우상파괴운동으로 고대미술이 말살된 뒤 유럽은 고트족에 의하여 평정된다. 이때부터 '독일양식', 즉 고딕이나 딱딱한 비잔틴양식이 전파되었는데 13세기 후반 이후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조토, 조각가 피사노와 디 캄비오 등이 토스카나 지방에서 고대미술 전통의 부활 운동을 펼친다. 이를 '리나시타'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19세기 초엽, 프랑스 학자의 주목을 받아 르네상스라는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이어서 영어·독일어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란 용어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탈리아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은 한국미술사학계의 원로이자 거두인 임영방 선생(74)의 필생의 연구 성과물이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선생은 학문연구의 40년 삶을 이 책에 바쳤다.

제목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르네상스라는 주제를 일별하는 두 가지 핵심어는 '인문주의'와 '미술'이다. 임영방 선생은 예술로서의 미술이 지니고 있어야 할 본연의 내용에는 "종교, 신화, 철학, 사상, 자연, 인간, 기예이며 시적 창의력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종교, 신화, 철학, 사상 등은 곧 인문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주제들이다. 즉 진실한 미술은 인문주의 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믿음이다. 저자는 이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미술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미술

이라고 믿는다. 르네상스 미술에서 미술이 갖추고 있어야 할 전형을 발견해 낸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이를테면 그 발견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본질을 인문주의 정신의 맥락 속에서 다각적으로 탐문하고 분석하는 부분에서 찾아진다. 저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역사나 사상 같은 어느 하나의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풍부한 외국 문헌과 사료 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시대의 방대한 전체상을 조망한다. 저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체상을 조망하기 위한 포석으로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 태동의 사상적, 역사적 기원을 면밀하게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동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능동적인 삶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지식은 절대적이고 성공적인 삶의 무기가 되어 격상된 인간 존재를 만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고대 이래 야만족들의 계속적인 이탈리아 침공과 점령, 게르만족의 무자비한 문화파괴적인 침공 등에 의한 문화의 황폐화는 온전한 인간성 회복의 갈망을 부채질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탈리아는 무의식 속에서 고대 문화유산을 삶의 배경으로 삼았고, 또 동로마 제국과의 연대 속에서 자신들의 옛 모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적인 재건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14세기경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자각적 현상은 지식에 대한 갈망과 교양 교육의 확대로 나타났다."

저자에 의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세 가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고전 인문주의에 대한 숭배, 인간에 대한 관심과 자각, 능동적이고 세속적인 도덕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문주의의 할아버지이며 르네상스 문화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당대의 지성 페트라르카는 지식을 고전문화인 이교적인 원천과 그리스도적인 원천에서 탐지하고, 고전문화로부터 도덕관을 삶의 방법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 순간부터 이탈리아에는 인문주의 교육의 경향이 싹텄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문주의 교육이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덕성을 고전 고대의 저작물의 해독을 통하여 배우는 새로운 교육”이라고 분석하고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인문주의가 어떻게 태동하고 전개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는 것에 이 책의 초반부와 4부를 할애한다.

이 책은 전체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초반부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역사적 사상적 기원을 인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중반부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의 실물을 이룬 예술가들과 그들의 미술을 꼼꼼하게 연구 분석한다. 저자는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서 미술이 발전한 이유를 2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시대의 물결(과제)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의 가치를 개발하고 그 위상을 높인다는 데에 있었다. 이에 따라 실현성, 정확성, 과학성 등을 중요시하게 되어 새로운 문명과 문화의 길이 열렸고 미술이 문화적인 전형으로 부각되었다.”

책에 의하면 고대를 회상하고 연구하며 그 학문의 가르침을 모범으로 삼아 인간 성찰을 함으로써 인간성 개발이라는

데에 목표를 둔 르네상스인들은 호기심, 탐구심, 모험심, 개척정신, 실천력, 소유력 등을 마음껏 발산했는데 이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예술, 즉 미술이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과 예술의 관계가 사회적인 차원으로 처음으로 설정되고 그 위상이 정립된 최초의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시기이며 이 시기에 또 “작가 열전의 형식을 갖춘 작가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예술비평론과 예술비교론이 발전한 시기도 바로 르네상스 시기였다”고 말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의 중반부에서 저자는 인문주의 미술의 구체적인 도상(圖像)과 1500년대 후기 르네상스의 양상을 분석한다. 저자는 르네상스 전 시대의 도상과 르네상스 미술의 도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르네상스 미술 고유의 인문주의 정신을 일별해 낸다.

7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그 분량이 텍스트의 질을 담보한다기보다는 텍스트의 질이 외려 원고의 분량을 규정하고 장악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본문에 적절하게 비치돼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200여 컷의 도판과 저자의 정갈한 문장은 이 책이 전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양서로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 김도연 기자